



## Ⅲ-1 고대~고려 시대의 문학 [1] 가락국 신화

### 모의 평가 2회 정답 및 해설



#### 정답 및 해설

1 ①      2 ④      3 ④      4 ④      5 ①

#### 1

| 정답 해설 | 이 글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의 탄생과 가야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②, ⑤ 이 글은 수로왕의 탄생과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.

③ 수로왕이 신답평을 보며 개척하면 좋겠다고 한 점과 곡식 창고 지을 곳을 둘러보았다는 점에서 농경이 정착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이 글로만 보아서는 제정일치 사회인지 알 수 없다.

④ 민담에 대한 설명이다.

#### 2

| 정답 해설 | 신답평에 도움을 정하고 관청 등을 짓도록 명한 것은 수로왕이므로 알에서 태어난 여섯 사람이 모여 함께 정하는 장면은 연상할 수 없다.

| 오답 피하기 |

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, 구간이 그 말대로 했다는 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다.

② 구간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다.

③ 하늘에서 내려온 금합에 여섯 개의 알이 있었고, 이 알에서 각각 어린아이가 태어나 열흘 남짓 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었다는 내용에서 연상할 수 있다.

⑤ 국내의 장정과 공강(工匠)을 두루 불러 모아 튼튼한 성곽을 쌓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다.

#### 3

| 정답 해설 | [A]에서는 ‘호명-명령-가정-위협’의 구조가 나타나고, | 보기 |에서는 ‘호명-명령-서술-가정-위협’

의 구조가 나타난다.

| 오답 피하기 |

① [A]와 | 보기 | 모두 거북에게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염원하고 있다.

② [A]와 | 보기 |는 모두 흙을 파내면서 불렀으므로 노동요로 볼 수 있다.

③ [A]와 | 보기 |의 ‘거북’은 모두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스러운 대상으로 천상적 존재이다.

⑤ [A]와 | 보기 | 모두 집단이 모여 부를 목적으로 창작된 노래이다.

#### 4

| 정답 해설 | ‘질박하다’는 ‘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.’, ‘검소하다’는 ‘사치하지 않고 꾸밈없고 수수하다.’라는 뜻이므로 수로가 수수하고 꾸밈없는 성품임을 알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① 꼼꼼하고 성숙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.

② 낙관적인 모습이나 차분한 성품은 엿볼 수 없다.

③ 합리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, 화려함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.

⑤ 소탈한 성격은 엿볼 수 있으나,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.

#### 5

| 정답 해설 |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백성에게 일을 시킨 점에서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② 백성의 힘을 빌려 성곽과 궁궐 등을 지었다.

③ 특별히 욕심을 앞세웠다고 볼 수 없으며, 주변을 힘들게 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.

④ 백성을 배려한 점에서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밀스럽게 진행하지는 않았다.

⑤ 권위를 세우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.